

# 박물관사람들

2014년 여름 46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기획 | 한국의 음성

- 04 한국의 음성
- 08 타임머신을 타고
- 11 시골이 되어 버린 도시

전시실 산책

- 14 어떤 영혼인들 소중하지 않으랴

회원마당

- 17 대영박물관에 뜬 '달'
- 20 꽃비, 나한전에 머물다
- 23 地圖別曲

박물관 탐방

- 26 표현의 재미와 공간의 미학

학술상

- 28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

숨은 전시

- 33 대롱불기 유리잔

박물관회 소식

-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흥주읍성

책을 만들면서

푸르름이 강해서 연하게 할까!!! 유월의 진녹색에서 보고픈데...(水)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먼 과거로 떠나본다는 것...(鉉)  
 잠깐 한눈판 사이 초록이 깊어졌다.  
 아직 연초록빛에 머물고 있는데...(愛)

계절의 온기가 깊고 넓게 전해지기를...(媛)  
 혼돈과 아픔의 봄이 저문다...(文)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오면 녹음방초 승화시라...(음)  
 간절한 마음의 끝자락, 오늘이 참 더디다...(정)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4년 6월 3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읍성

글 심정보 한밭대학교 교수

## I

읍성은 각 고을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고려 현종대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東女眞의 侵寇가 동해안 일대에 이르자 연해읍에 읍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 빈번하게 침탈하는 왜구를 막을 목적으로 바닷가 고을부터 축조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모든 府·牧·郡·縣은 道 산하에 있는 병령의 단위로서 통례적인 명칭을 고을(邑)이라 하고 그 지방관들을 총칭하여 守令이라 부르는데, 이 고을을 에워싸서 축조한 성곽을 邑城이라 칭하고 있다. 각종 지리지 중 『동국여지』에서는 州城·郡城·縣城으로 표기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서 邑石城 또는 邑土城 등 축성 재료를 병기하여 기록한 이래 대부분의 지리지에서도 邑城이라 표기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수록된 것은 96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15개, 경상도 27개, 전라도 20개, 황해도 4개, 강원도 6개, 평안도 16개, 함길도 8개소이다. 또한, 이 읍성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 행정구역과 비교하여 보면 당시의 행정구역 330개소 중 읍성이 있는 곳은 160개소이다. 그중에는 2개소 혹은 3개소의 성곽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총 190개소였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334개의 고을 중 읍성이 있었던 곳은 107개소로 수록되어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수보다는 상당수가 감소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많은 읍성이 파괴되었고 그 후 수리를 하지 않아서 형체만 있고 쓸모가 없게 퇴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읍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客館(客舍)이다. 객사의 실제적인 기능은 중앙으로부터 온 사신들의 숙소였으나, 국왕의 위패가 안치되어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 쪽을 향해 배향하였으므로 지방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로 읍성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였다. 그 외의 중요 시설로는 고을 수령의 거주지인 衙舍와 수령이 공사를 처리하는 동헌이 있으며, 지방 출신 인물들로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鄉廳이 있었다.

객사와 아사는 보통 읍성의 중앙에 위치하였고 기타 공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용 건물들이 아사 앞에 군을 이루고 있었다. 객사와 아사는 단일 건물이 아닌 여러 건물의 군으로서 아사의 경우 수령의 집무소인 동헌 또는 정청과 주거 시설인 內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종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군기고는 객사 주위에 있었다. 읍성 내의 전체적인 가로망 형성은 성문 개설에 따라 변경되어 동문, 남문, 서문이 개설되었을 시의 성내 도로망은 'T'자형인 3교차로 형태가 되었으며, 동문과 서문만 개설되었을 시에는 '一'자형이 되었다. 도로망은 자연발생적



01 무장읍성 고지도, 19세기

이고 불규칙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우회로, 막힌 골목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성곽 내외에는 순환로를 만들었고 객관 앞의 중앙광장과 교역을 위한 성문 앞 광장 등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읍성 내의 중요 시설로 객사, 아사, 향청을 배치하였고 이 건물들은 각기 중앙정부의 왕, 고을의 수령, 그리고 고을의 향민을 상징하였다. 또한 교육, 사상, 문화

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향교와 서원을 두었으며, 제사를 위한 시설로 문묘, 사직단, 여단, 성황단이 있었다. 군현에 따라 읍성 내에 邑市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都城의 중요 시설을 축약시켜 놓은 형태였다. 이는 太祖가 즉위 3년 9월에 한양을 新都의 터로 정한 뒤 가장 먼저 판문하부사 권중화와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한양에 보내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 등의 터를 정하게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02 한양도성 외벽



03 한양도성 내벽(적심부 및 경사내탁)



04 해미읍성 내벽(적심부 및 경사내탁)

## II

우리나라의 외침에 대한 역대 방어전략은 들판의 곡식을 깨끗이 치우고 산성으로 입보하여 적이 지쳐서 물러갈 때를 기다려 공격하는 淸野入保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청야입보 정책에서 연해 읍성의 출현은 새로운 방어전략의 모색이었다.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한 백성과 옮기지 못한 가축이나 곡식의 손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산성에서의 소극적인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연해에서 직접 왜적을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읍성의 축조 목적은 '有事 시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하고, 無事할 시에는 힘껏 들로 나가 밭을 가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읍성의 입지조건은 방어를 용이하게 하는 險阻함에 의지하고 백성들이 入保하여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풍부한 水源과 넓은 지형이 요구되었으며 경작지가 가깝고 비옥한 곳이 고려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토성이 많이 축조되었고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도성의 축조 기법에 따라 외벽은 석재로 축조하고 내벽은 토사로 경사면을 이루는 內托工法으로 축조되어 등성 시설로 활용되었다. 한양도성의 축조 기법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동대문

축구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동벽 일부가 잘 드러났는데, 외벽 면석의 크기는 시기별로 각기 다르나 내벽은 계단상으로 좁혀서 축조하고 등성 시설로 경사면을 이루도록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내탁한 것을 볼 수 있다. 태종대에 축조한 해미읍성은 한양도성의 축조 기법에 따라 적심석 기저부 너비는 7.2~7.4m인데, 내벽의 1.2m 정도 높이에서 외벽 쪽으로 1.5m 정도 들여쌓기하고, 다시 1m 정도 축조하고 외벽 쪽으로 들여쌓아 대체로 3단 정도의 계단상을 이루고 토사를 다져서 경사내탁하여 아군들이 성벽 상부에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II

세종 20년에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을 반포하여 체성을 모두 석재로 쌓도록 하고,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면의 내탁 부도 석재로 계단을 이루도록 하여 읍성의 석축화가 시행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세종은 敵臺, 甕城, 煙臺의 도본을 내려 중요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석축화한 이후 오히려 축성 완료 후 단기간에 붕괴되는 현상이 생겨나 세종 25년에 이보흠이 상소하여 다시 도성 축조 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고고학적으로는 웅천읍성 증축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웅천읍성 축조가 시작된 것은 세종 16년(1434)이었지만 초축이 완료된 것은 세종 19년(1437)으로 판단된다. 이때 축조한 동북벽 체성 외벽은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으며 미석이 시설되었고, 체성 높이가 5m 정도로 계측되었다. 내벽은 석재로 계단상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이것은 세종 16년 최윤덕의 건의로 세종 20년에 반포한 <축성신도>에 의한 축성법인 내면에 석재로 16척을 메우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되 박석으로 펴게 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읍성의 석축화가 이미 반영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종 1년에 남쪽으로 증축한 체성에서는 동북벽 내벽의 석축 계단이 토사를 다져서 이룩한 경사내탁의 축성법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도성 축조 기법으로 다시 축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읍성 축조 기법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한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평지나 평지에 가깝게 접근하여 입지하고 있는 평산성 및 구릉성은 방어를 위한 성곽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읍성에서의 방어계획이 무너지면서 읍성 무용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산성 입보 전략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성 입보 전략은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영조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었던 읍성이 거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축조되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는 평지 읍성이 방어거점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래읍성은 종전의 둘레 3,090척이 17,291척으로 5배 이상 커졌으며, 대구읍성은 944척 규모의 達城과는 별도로 둘레 12,744척의 규모로 신축되었다.

방어시설도 『기효신서』의 城制를 바탕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읍성은 줄어든 반면, 치성과 포루는 한층 많이 갖춰졌으며, 여장에는 매 타마다 포혈을 3개씩 시설하여 방사에

편리하게 하였다. 전주읍성의 경우 『築城啓草』에 의하면, 영조대에 개축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읍성 둘레 2,249보, 웅성이 4개소, 치성이 6개소였으나 1734년 개축 후 규모는 둘레 2,618보, 높이 20척, 읍성 1개소, 치성 11개소, 여장 1,307개소로 변경되었다. 이를 비교하면 체성의 길이는 369보 길어졌고 북문을 제외한 3문의 읍성은 모두 없었으며, 치성의 수는 5개소를 늘리고 있어 규모면에서 대형화되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치성과 여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웅천읍성 초축 시기 내벽(계단으로 석축화)



06 웅천읍성 증축부 체성 내벽(적심부 및 경사내탁)



01 홍주읍성 서문벽

# 타임머신을 타고

글 강현자 회원

읍성은 고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으로 민중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흙과 돌을 이용하여 높은 성벽을 쌓아 외부로부터 고을을 지켰다. 그 성안에서 그들의 삶과 문화가 이루어졌다. 읍성에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부분 부분 남아 있는 성의 흔적을 찾아 그들의 삶 속으로 시간 여행을 간다.

홍성의 터줏대감이면서 홍주읍성의 정문인 조양문과 마주한다. 조양문은 홍주읍성의 동문이며, 북문과 서문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곳은 1894년 동학농민군의 전투가 있었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병투쟁을 치른 곳이다. 홍주읍성은 치열하게 살아낸 역사의 애환을 안고 지금은 평화롭게 그 흔적만을 전하고 있다. 성곽의 길이가 1,772m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810m만 남아 있다. 성내에는 관아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동헌), 여하정만이 남아 있다.

동헌의 바깥문인 홍주아문을 들어서면 현재 홍성군청이 있고, 뒤쪽으로 안회당이 있다. 안회당은 홍주목 관아의 동헌으로 22칸의 목조 기와집이다. 현재 남아 있는 동헌 가운데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이다. 안회당 뒤뜰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 여하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안회당의 고풍스런 목조 건

물과 연못가 여하정이 어우러진 뜰의 봄 풍경을 감상하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시조 한 수가 울려 나올 것만 같다. 봄에 내리는 보슬비가 촉촉하게 만물을 깨우는 소리가 이리하러니. 마음이 옛 선조들의 삶으로 젖어 든다.

읍성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읍성 안 민가의 중심 어디쯤에 우물이 있었으리라. 우물가에서 마을 아낙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본다. 장은 어디쯤에서 열렸을까? 대장간의 쇠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읍성 안에서 나와 동문쪽 성벽을 걷는다. 둥근 모양으로 부드럽게 다듬은 돌들이 곡선을 그리며 켜켜이 쌓여 있다. 성벽이 외락 세월을 풀어 놓는다. 몽돌스럽게 쌓아올린 성벽을 쓰다듬자, 구수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민중들의 삶이 우러나오는 것만 같다. 오랜 세월의 힘이라. 따사로운 봄 햇살이 성벽을 따라 길게 드리운다. 성벽에 기대어 봄 햇살을 나누자, 성벽이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따사로움이 전해진다.

해미읍성은 성곽과 진남문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많은 건물이 모던하게 복원되어 있다. 해미읍성은 홍선대원군 때 천주교인을 박해한 현장으로 역사적인 장소이다.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에 잡혀 왔다가 질병과 고문, 굶주림으로 죽어 갔다. 그 시대가 나에게로 와서 하소연을 한다. 천주교인들을 회화나무에 철사줄로 머리채를 매달아 처형하였다고 한다.



02 해미읍성 내벽

회화나무와 마주 서자, 그때 그 시절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려 온다. 수천의 비명 소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져 준다. 세월이 약이라고 회화나무가 도리어 나를 위로한다. 회화나무는 해미읍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지고 있다. 300년 동안 성안에 갇혀서 선비를 상징한다는 회화나무가 제 몸 삭아 내리는 줄도 모르고 성벽보다 더 높게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남루에 오른다. 진남문은 남문으로 해미읍성의 정문이다. 진남루는 홍예문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단층 문루이다. 대석에 '皇明弘治四年辛亥造'라는 붉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읍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작은 읍을 지키기 위해 높은 성을 쌓았을 민중들의 노고가 그들의 삶으로써 고스란히 전해진다.



03 해미읍성 회화나무



04 해미읍성 진남문

병인박해 때, 현감이 이 진남문 위에서 천주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감독했다고 한다. 작은 이 음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음성은 말이 없지만 평화로워 보인다. 현대적으로 지어진 몇몇 초가집들과 옥사와 우물과 나무들이 역사를 묻고 말없이 모던한 이야기에 젖어 들고 있다.

진남문에서부터 성곽 위 길을 걷는다. 성곽 길이는 1,800m이고, 높이는 5m이다. 성곽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음성이다. 성곽이 튼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려는 의지처럼 느껴진다.

성곽을 돌아 동문과 서문을 이어 주는 가운데로 뻗어 있는 큰길을 따라 걷는다. 성문 밖으로 나오려 하자, 가시 돋힌 탱자나무 작은 울타리가 옷깃을 붙잡는다. 초기의 성은 나무를 둘러 울타리를 치는 목책이었다고 한다. 탱자나무를 그곳에 남겨 둔 것은 목책의 자취를 남기려는 뜻이기도 하겠다. 그럼에도, 당시에 감옥을 돌렸던 그 탱자나무는 분명 아닐진대, 당시 천주교인들의 아픈 비명이 탱자나무 가지처럼 콧속 찌른다. 마치 엄한 스승의 훈계처럼 가슴이 따끔거린다.

성안에서 나와 성벽을 쓰다듬어 본다. 홍주읍성의 돌들이 몽돌몽돌 부드러운 반면 해미읍성의 돌들은 거칠고 날카롭다. 성벽을 따라 돌아 보면 성벽의 구간구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충청도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동원되어 성곽을 쌓았는데, 당시 그들의 출신 고을명을 새겨 놓은 것이다. 나중에라도 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생각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성벽과 돌들과 음성에 남아 있는 유물들이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먼 과거로 데려다 주었다. 성안에는 관아가 있었고, 민가와 시장이 있었다. 음성 안에 있는 큰 집은 아전들의 집이었으며, 땅 많은 양반들은 성 밖에 큰 기와집을 지어 살았다. 그 시대에도 삶은 닳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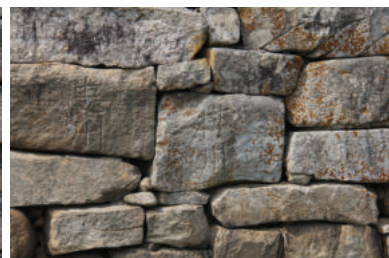
그것들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모습들이 나의 조상이었고, 내가 그들의 후손임을 더듬어 확인하는 것 이리라. 조상들의 삶을 알아 가는 기쁨은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 주었기에 가능하겠다. 하여, 이렇게 그 시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단지 욕심 때문만은 아니리라. 오랜 역사가 던져 주는 깊은 심미안을 느낄 때마다 무엇으로 답을 해야 할지, '무릇 만물에는 각기 주인이 있어 본래 내 것이 아니거늘'이라고 읊은 소동파의 시구가 답이 될까. 역사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욕심을 대신해야겠다. 🐾



05 홍주읍성 서문벽



06 홍주읍성 동문벽



07 해미읍성

# 시골이 되어 버린 도시

글 서유미 회원

로마 멸망 이후 1,000여 년간 지중해 연안은 북아프리카 사라센 해적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마을들은 약탈당하고 불탔으며 붙잡힌 기독교인들은 노예 시장으로 넘겨졌다. 해변 마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해안의 산 위나 절벽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망루와 성채를 세우고 해적의 침입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 골목을 미로처럼 만들었다. 현재 이런 마을들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여행지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친퀘테레 같이 쪽빛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절벽 마을들에서는 해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움과 여유가 느껴진다.

유럽에 사라센 해적이 있었다면 동북아에는 왜구가 있었다. 주된 목표인 조창과 세곡선을 터는 것은 물론이고 민가를 습격해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양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 양자강을 타고 중국 내륙까지 침입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까지 침략했으니 국제적인 골칫덩이였다. 조선과 명나라가 바다를 포기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니 당시 왜구의 분탕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았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안심하고 바닷가에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였던 고려와 조선은 왜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대신 해안에서 가까운 읍치에 읍성을 쌓았다.



01 빙기동에서 내려다본 낙안읍성

현존하는 우리나라 읍성 중 유일하게 현직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은 낙안읍성이다. 제일 높은 곳인 빙기동에 오르면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워서 방문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 늦가을이나 겨울에 방문하면 지붕에 새이엉을 이은 직후라 마을 전체가 노란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즐겁고 편안하다는 낙안의 지명과 잘 어울리는 풍경이다. 방문자들은 성곽 길을 따라 산책하고 정겨운 남도의 시골 마을을 즐기다가 푸근한 마음으로 떠난다. 이곳 역시 시간이 왜구의 흔적을 대부분 지워 버린 것 같다.

그러나 낙안읍성의 과거 모습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현존하는 다른 전통 마을들과는 달리 계획



02 낙안군 지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시로 만들어진 곳이다. 낙안읍지를 비롯한 옛 기록을 살펴보면 동헌과 객사를 중심으로 내아와 향리들이 집무하는 이청, 호구 관리 등의 행정을 처리하는 호방청, 훈련청, 사령청, 장교들이 근무하는 장청, 곡물을 빌려 주는 사창, 향사당 등의 건물과 사직단, 성황사, 여제단 등의 공식적인 제의 장소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도성인 한양의 축소판인 것처럼 보인다. 이 건물들을 모두 복원한다면 지금과는 달리 절반 넘는 면적을 기와집이 차지할 것이다.

동헌 옆의 내아에서 기거하는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한 종4품 낙안군수였다. 수령의 품계를 볼 때 지금은 순천시 변두리 면 소재지인 낙안이 과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까지 낙안군수는 순천진관병마동첨절제사를 겸했다. 토착민 출신 육방 아전들은 성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관노비들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방청에는 15명 정도의 관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왜구와 싸울 무기를 두는 무기고가 있었고, 그 무기로 지역을 방어하고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 또한 성내에서 살았다. 낙안읍성은 소박한 서민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푸근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성곽 안에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있고, 공무원과 경찰, 군인 가족과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사는, 군사력을 갖춘 행정도시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인이 생각하는 도시의 개념과는 다른 면이 많다. 첫 번째로 이곳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상주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장시는 상설시가 아니라서 그들이 굳이 성안에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낙안읍성도 5일에 한 번 대로가 T자로 만나는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장이 섰다. 관아에 납품하러 온 자들,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팔고 구경도 할 겸 나온 주변 마을 사람들로 북적대다가도 저녁 때 장이 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둘째로 상류층이자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이끌어 가는 양반들이 성내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씨족 마을



03 낙안 동헌

을 이루고 살았다는 점이다. 향촌의 실질적인 지배자이며 특히 많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했을 경우엔 조세 문제 등으로 관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잘 지내면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가까이 거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성안에 살면서 부르주아라고 불리며 소비와 문화를 선도했던 유럽의 도시와는 다른 양상이다. 낙안읍성은 더 이상 팽창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고 이것이 근대적인 도시로 진화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읍성 안에서 견고한 세력을 구축한 이들은 향리라고도 하는 아전들이었다. 지역 사정에 어두운 타 지역 출신인 수령과는 달리 세습하여 고을의 실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양민들에게 마음껏 권세를 부릴 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시대 향리는 나라에서 녹을 받지 못해서 요령껏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해야 청렴한 아전일까? 이런 이유로 옛날이야기에서 아전들, 특히 이방이 고을 수령과 백성 모두에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도 읍성에 사는 사람들은 씨족 마을보다는 비교적 평등하게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성씨가 모여 살면서 종가를 마을의 제일 뒤편 높은 곳에 배치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들마저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위치한 씨족 마을과는 달리 낙안읍성 민가 배치에는 별다른 위계가 없다. 풍수상의 이유로 깊은 우물을 파지 않았기에 지대가 낮은 곳에 만든 공동 샘과 빨래터에서 아낙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에서 서로 어울려 놀았을 것이다.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건재했던 낙안읍성은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 지금과 같은 시골 마을이 되어 버렸다. 망국의 관청 소재지이자 항일감정이 강했던 낙안군을 폐군시키고 전남의 곡물을 반출하기 편하도록 낙안군의 작은 마을이었던 별교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해방이 됐는데도 낙안읍성은 예전과 같은 군청 소재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순천시의 변두리에 있는 면 소재지의 민속마을로 남았다. 식민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구역 변경이었기 때문에 폐군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결코 편하지 않다고 한다. 낙안읍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여러 건물들이 복원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걸모습의 복원뿐 아니라 거기 살았던 조선시대 지방 도시민의 삶도 제대로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어떤 영혼인들 소중하지 않으랴

글 하영남 회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면서 나는 다짐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오르세 미술관과 인상주의 작품이라면 웬만큼 섭렵하지 않았는가. 한국의 근대 미술 프랑스 바라기는 좀 식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그 조합이야? 이젠 더 다양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불만이 어디 미술계뿐이라. 눈 감고 귀 막아야 사는 나라에서 예술은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는데, 시대를 거스른 그들의 힘찬 붓질이라면 세월호 참사로 가라앉은 마음에 한줄기 빛을 선사하겠지.

‘파리, 근대도시’라는 제목으로 전시는 시작되었다. 19세기 파리와 만국박람회 관련 스케치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라울 브랑동의 <파리 6구 위스망스가 1번지>는 낮을 빼는 석판화였다. 건물이 줄 수 있는 모든 환상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화환 같은 중앙의 아치가 먼저 시선을 잡아끌었다. 전체 건물의 전면과 측면 전경, 계단·출입문·발코니·외벽의 부조, 그리고 거실 안까지 꼼꼼히 묘사되어 있었다. 여느 건축물 스케치



01 클로드 모네, 파리, 1879-1880



02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어린 시절의 페르낭 알팡, 1880

처음 마음에 닿은 작품은 모네의 <서리>였다. 얼어붙은 센 강의 지류에 서리가 내린 풍경이라고 한다. 푸르스름한 하늘과 얼음뿐이다. 강가의 나무와 수풀에도 서리가 덮여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색과 형태를 무화시키는 서리를 모네는 왜 그리려고 했을까? 이 무렵 모네는 첫 아내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시기였다고 한다. 모네의 한기와 고독이 거친 붓질에 투사되어 있다. 화창한 봄이지만 심정적 겨울을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그러하듯이, 전면의 검은 물체는 물속에 파묻힌 채 얼어붙은 작은 배라고 하니 또한 예사롭지 않다. 세상에 대한 회의가 비애감을 불러일으켰다니, 모네와 나는 동병상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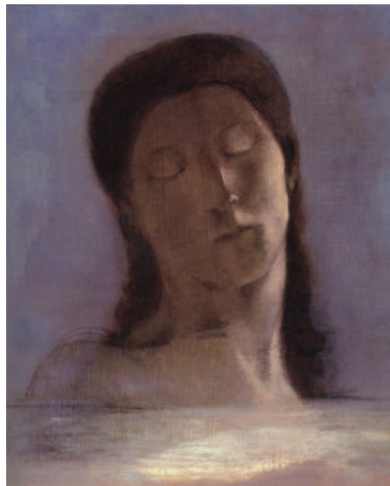
르누아르에 대한 평가는 좀 변덕스러운 편이다. 그림 속 여자의 피부는 유화임에도 파스텔화 같은 색감에 갖 구운 빵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부러움과 한숨을 부르는 비현실적인 몸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페르낭 알팡> 초상화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이 느껴졌다. 검붉은 배경이 소년의 하얀 피부를 도드라지게 한다. 짧은 고수머리에 또랑또랑한 눈망울, 선홍색 입술에 막 들숨이 스치는 듯하다. 약간 상기된 귀, 솜털 보송한 목덜미까지, 만지면 손끝에 온기가 감지될 듯 생생하다. 소년이 입은 세일러복은 당시 유행하는 복장이었다고 한다. 왜 이 아이의 표정이 눈을 사로잡는지 모르겠다. 질은 빨강이 왜 핏빛으로 읽히는지 그 또한 모르겠다.

이번 전시의 잔재미는 정물화에 있다. 고갱과 세잔의 정물은 이미 눈에 익었다. 폴 세뤼지에의 <정물, 화가의 아플리에>는 창밖 풍경이 아니라면 세잔의 작품 같기도 하다. 그러나 네덜란드 화가인 메이예르 데 한의 <당근이 있는 정물>은 다르다. 소박한 소재를 평범한 구도로 늘어놓고 가만가만 그린 듯하다. 어느 것 하나 강조하지 않았으나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침묵 같은 색채와 선



03 메이예르 데 한, 당근이 있는 정물, 1889





04 오딜롱 르동, 감은 눈,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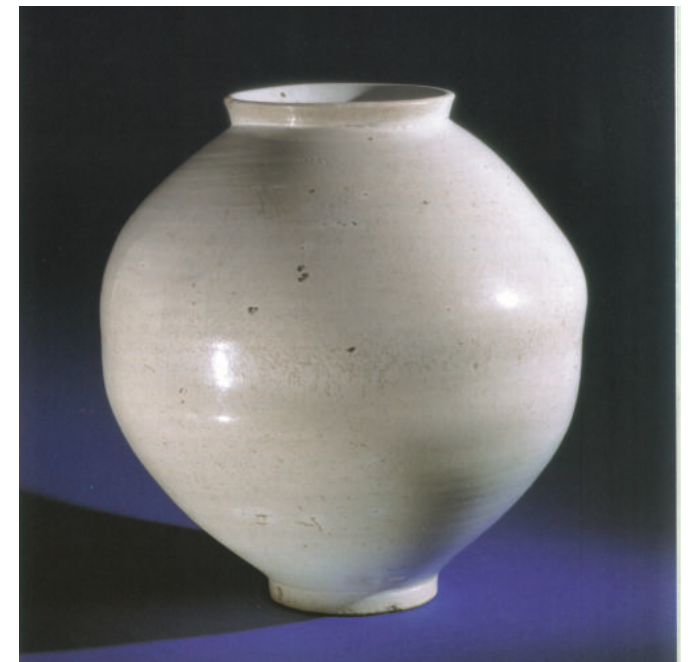
05 샤를 빅토르 기유, 석양, 1892

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피에르 보나르의 <식탁 위의 사과 접시>라는 독특한 정물화를 선보인다. 우선 사과는 먹음직스럽지 않다. 접시도 정중앙에 놓았고, 탁자를 덮은 테이블보의 격자무늬는 평면적이다. 하단의 검은 공간은 블랙홀처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빨아들인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와 불안정한 배치로 관객의 불안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묘한 각도로 고개를 돌리고 지그시 눈을 감은 사람이 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 남녀 혹은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림이다. 오딜롱 르동의 <감은 눈>은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 배경에 고개만 나와 있다. 목 아래의 빛 반사로 보아 물속 같기도 한데, 표정은 참 평온하다. 어쩐지 내 눈엔 우리의 국보 78호 금동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자꾸 겹쳐진다. 은은한 미소를 거두고 잠시 명상에 잠긴 듯하다. 일상 탈출 욕구가 예술이러지만 그 또한 낮익은 미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연휴의 약자한 실내를 진정시킨다. 그러나 뜻밖에도 인물은 여자이고 미켈란젤로의 조각 <죽어 가는 노예>와 표정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비한 꿈의 왕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린 르동은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주제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한다.

총 6개의 전시실에는 회화뿐 아니라 조각, 공예, 사진, 데생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있다. 드가의 조각품은 회화를 위한 습작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빼어나다. 에펠 탑 기록 사진을 보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업인지, 당시 프랑스 인들이 왜 반대했는지 수궁할 수 있었다. 황홀한 데생을 보며 만들어질 공예품을 상상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롭게 다가오는 화가가 많았다. 내가 굳이 눈도장 찍지 않아도 유명 작품 앞에는 인파가 넘친다. 어떤 영혼인들 소중하지 않으랴.

마지막으로 나를 사로잡은 작가는 샤를 빅토르 기유였다. 연한 핑크로부터 노랑과 푸른색으로 바뀌는 하늘과 불꽃 같은 구름 모습이 담긴 <석양>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법사가 하늘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쉬이 내려놓을 수 없는 신선한 마음이 그림 주변을 맴돈다. 🌸



01 달항아리, 대영박물관

## 대영박물관에 뜬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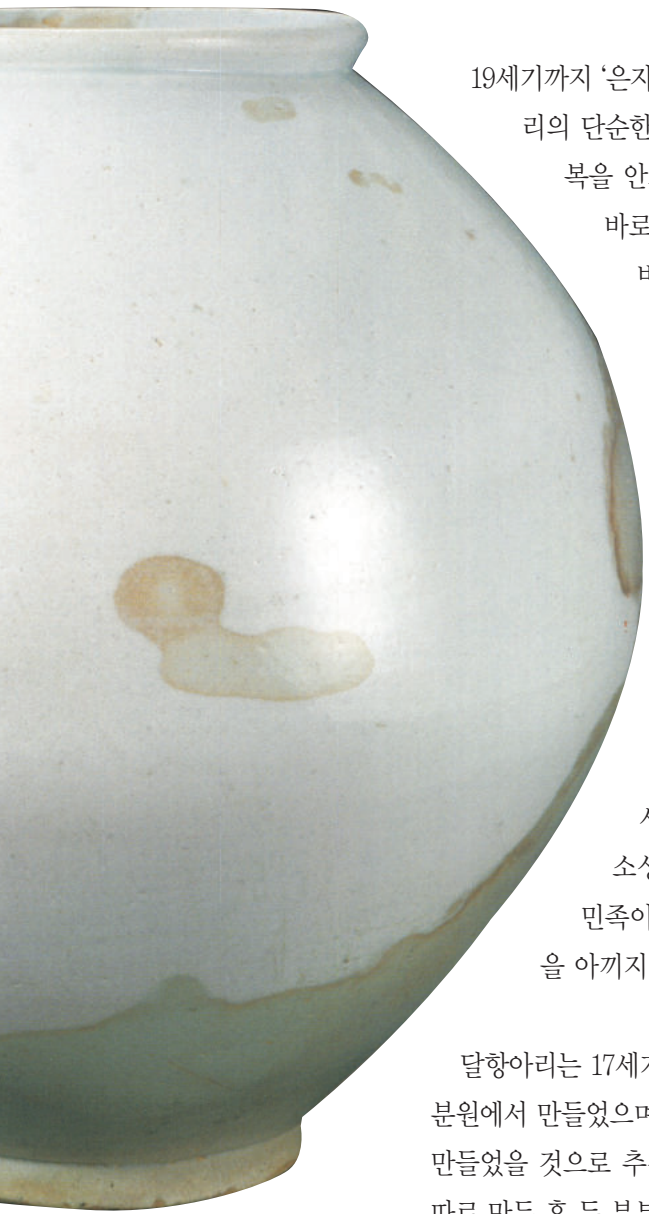
글 서혜정 회원

생애 첫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걱정과 불안함에 잠들기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꿈꾸었던 여행이지만,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부담감, 열흘간 다섯 개 나라를 도는 빡빡한 일정을 잘 견뎌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드디어 영국에 도착했다. 까다로운 입국 심사까지 끝내고 나니, 몸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는 순간, 이런 모든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 속의 유럽 그대로였다. 첫 일정인 대영박물관은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꼭 가 보고 싶었던 곳이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아주 많은 것이 놀라웠다. 학교에서 견학을 와 박물관 곳곳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책으로만 보고 배우는데 이곳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700만 점이 넘는다는 대영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실제로 보니 하나같이 새롭고 신기했다. 박물관 규모가 크고, 나라마다 전시실이 따로 있어 찾아다니기 힘들었지만 각 전시실마다 그 나라 특유의 색깔이 묻어 있고 그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래도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한국관이었다. 2000년 11월 약 400㎡ 규모의 한국관을 열었는데, 구석기 유물부터 청자, 백자 등 조선 후기의 미술품까지 약 2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띈 것이 선이 곱고 색깔이 청아한 아름다운 도자기들이었다. 특히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말았다.



02 달항아리, 국보 309호, 삼성미술관 리움

19세기까지 ‘은자의 나라’로 알려졌던 조선을 방문한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는 달항아리의 단순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1935년에 이 달항아리를 수집해 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지금 대영박물관에 있는 항아리가 바로 버나드 리치의 달항아리이다.

버나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항아리를 빈 출신의 제자인 도예가 루시 리에게 주었고, 루시 리는 1995년 죽으면서 다시 버나드의 아내 재닛 리치에게 주었다. 1998년 재닛이 죽자, 경매에 나온 이 항아리를 대영박물관에서 구입한다.

달항아리는 조선 백자의 한 종류인데, 백자는 입자가 고운 고품토로 그릇을 빚고 장식질의 유약을 입혀 1300~1350도에서 번조해 낸 순백의 도자기를 일컫는다. 태토가 곱고 장식유를 입혀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낸 것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유리질화되어 있다.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동양 도자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토 이쿠타로 오사가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명예 관장은 “모습과 형태에 있어서 좌우 대칭성과 형태의 균형, 마무리의 완벽함, 소성에 있어서의 완전 소성 등은 처음부터 의도치는 않은 것이지만, 백자대호의 형태는 바로 한 민족이 가진 가장 뛰어난 자질이 생성해 낸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달항아리는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전기까지 약 1세기 동안 조선왕조의 관요인 사옹원의 분원에서 만들었으며, 당시 광주 지역에 있던 340여 개의 가마 가운데 금사리 가마에서 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크기가 대형인 탓에 한번에 물레로 돌리지 못하고, 상하 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붙여서 완성했다.

대영박물관에 있는 달항아리 외에도 대표적인 달항아리가 많은데,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보물 1437호가 있고, 삼성미술관 리움에는 국보 309호가 있다. 그 밖에 남화진 소장의 국립고궁박물관 달항아리 역시 국보 3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리움 소장품을 먼저 살펴보면 몸통의 중심부를 이어 붙인 부분에 일그러짐이 거의 없어서 측면 곡선이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린다. 구연부의 외반과 수직 굽이 조화를 이루어 풍만하면서도 안정적이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달항아리는 안에 담겨 있던 물질의 침투로 인하여 생긴 얼룩이 표면에 번져 있어, 백자의 순수한 색택이 변질되었지만, 형태의 측면에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

국보 310호인 남화진 소장 달항아리는 크기와 높이가 국보 309호와 비슷하며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백자의 유약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 은은한 광택이 있는 옅은 담청색으로 유층이 얇고 균열이 없으며 입 지름과 바닥 지름의 비율이 이상적이어서 형태가 안정적이며 우아하다.

먼 이국땅에서 여행 중에 만난, 휘영청 밝은 달밤과도 닮은 달항아리. 나는 그때 느낀 반가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섬세한 감상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먼 타국에 홀로 전시된 우리의 달항아리가 외롭고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달항아리의 소박한 멋스러움을 세계인이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심경은 슬픔과 한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았다.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달항아리. 말쑥고 하얀 박꽃같이 예뻐던 달항아리.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보는 이의 마음에 둥그렇고 밝은 달을 띄워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03 달항아리, 국보 310호, 국립고궁박물관



01 성혈사 나한전

## 꽃비, 나한전에 머물다

글 계윤애 회원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흰 눈발이 듕성듬성 날리는데 그곳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모란이 소담스레 피어 있고 연꽃 가득한 연지엔 연꽃 향이 은은하다. 영주에 있는 聖穴寺의 나한전이다. 소백산 기슭의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성혈사 나한전은 1984년에 수리를 할 때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 명종 8년(1553년)에 처음 지었고 인조 12년(1634년)에 다시 지어졌다 한다.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맞배지붕이며 기둥은 배흘림기둥에 가깝게 다듬었고 벽선을 세우지 않고 문짝을 달았다. 정면 세 칸에 설치된 꽃살문에서는 뛰어난 조각과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성혈사로 들어서는 누각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오롯이 홀로 서 있는 나한전에 이른다. 나한전은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을 모신 전각으로 매우 단출하며 기교는 없으나 예스럽고 소박한 멋을 품고 있다. 너무 소박하다 못해 밋밋해서 실망하려던 차에 전면에 온통 연꽃으로 장식된 꽃살문이 눈에 들어온다. 한곳으로 시선이 꽃히며 나지막이 탄성이 새어 나온다. 한동안 불박이가 되어 나한전의 꽃살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다. 소백산 자락에 숨어 있다시피 한 외지고 조그만 절집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꽃살문이 있을 줄이야.

절집의 창문에는 꽃으로 장식된 꽃살문이 많다. 불교에서 꽃은 상서와 깨달음의 상징이라 한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을 마치고 삼매에 들었을 때나 깨우침을 얻었을 때 하늘에서 축복의 꽃비가 내렸다 하여 법당의 꽃살문에 새겨진 꽃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예찬하여 정성스럽게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자 창문 가득히 꽃을 피웠다. 꽃살문은 부처님을 향한 모든 중생들의 염원과 숭앙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때문에 꽃살문 밖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 지점인 법당의 창문을 화려한 꽃으로 장식했던 것이다.

성혈사 나한전은 정면 세 칸인데 가운데 칸의 연지수금 꽃살문이 가히 압권이다. 한 폭의 민화를 보는 것처럼 푸근하고 정겹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진다. 통판을 투조한 것으로 널판에 꽃무늬나 수금무늬를 통째로 새겨 문틀에 끼운 것이다. 연꽃으로 가득한 연꽃은 마치 극락정토에 이르러자 하는 염원을 새겨 놓은 듯하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부터 수줍은 듯 조심스레 꽃잎을 여는 연꽃, 활짝 핀 연꽃, 끝이 도르르 말린 연잎 사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연꽃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 마리의 학이 먹이를 발견하고는 막 연못으로 내려앉고 있다. 단숨에 먹이를 낚아챌



02 통판 투조 연지수금 꽃살문

기세다. 긴장감과 함께 생동감이 넘친다. 하지만 아래쪽을 보면 이를 약 올리기라도 하는 듯 물고기들은 연 줄기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며 노닐고 있다. 연잎을 타고 노는 동자승을 보곤 웃음이 툭 터진다. 양 갈래로 뿔아 올린 머리와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린 모습이 귀엽다 못해 앙증맞다. 연잎을 배삼고 연 줄기로 노를 저으며 동자승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꽃살문 속의 무늬를 하나씩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좌우 양쪽 칸에는 솟을꽃살문으로 창호 가득 활짝 핀 꽃이 정연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중 한쪽 칸에는 가운데에 소담스러운 모란꽃이 위에서 아래로 길게 조각되어 있는데, 모란꽃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한다. 부귀영화가 텅없다고는 하나 가장 진솔하면서도 인간적인 바람이기에 모란꽃을 저리도 탐스럽게 피웠나 보다. 가만히 문살에 손을 갖다 대면 생화 그대로의 촉촉함이 묻어날 것처럼 꽃잎은 풍성하고 잎은 생생하다. 어떻게 단단한 나무로 부드러운 질감을 이리도 잘 표현했을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목공의 솜씨에 감탄하며 목공의 간절했을 염원에 나의 염원도 얹어 꽃살문에 신는다.

단청을 칠하지 않은 기림사 대적광전의 꽃살문, 화려한 색깔의 꽃잎으로 눈부신 동화사 대웅전의 꽃살문, 내소사 대웅보전의 빛바랜 꽃살문, 각각 저마다의 특색 있는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준다.

깊은 산 작은 절집인 성혈사 나한전의 꽃살문은 큰 절집의 화려하거나 장중한 꽃살문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바로 수수함이다. 군데군데 희미하게 빛바랜 단청이 남아 있어 예전의 선명하고 고운 모습을 그려 본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아름답다. 오랜 시간 비바람으로 단청이 벗겨진 그 자리엔 춘양목 특유의 검붉은 나뭇결이 드러나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미를 보여 준다. 목공의 뛰어난 솜씨와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서니 불단 중앙의 부처님과 좌우로 좌정한 16나한이 자비로운 미소로 낯선 이를 맞이한다. 문살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창호지 위로 선명히 드러나는 흑과 백의 꽃살문 그림자는 단순한 형상으로 한층 절제된 미를 보여 준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으려 할 즈음의 나한전은 차분한 빛으로 안온하다.

극락의 꽃비가 내리다 머문 꽃살문 사이로 잔잔한 빛이 새어 들어 법당 안은 고요하다. 번잡스러운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함에 마음을 맡긴다. 내 마음에도 꽃비가 내리길 빌면서. 🌸



# 地圖別曲

글 문정원 회원



이 한성도

## 지도, 땅과 물의 肖像을 그리다

금년 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한국근현대회화 100선’展에서 〈內金剛 眞珠潭〉을 보았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寫生 경험으로 금강산의 풍경을 체득하였던 小亭 卞寬植(1899~1976)의 역작이다. 기운찬 필력과 과감한 구도에 생동감이 가득하여 쏟아지는 물줄기에 옷이 젖고 천둥 같은 폭포 소리가 전시실을 채울 것 같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서 〈漢城圖〉를 마주했을 때 소정의 작품이 떠올랐다. 지도 속 우리의 산하가 그의 진경산수화를 축소해 놓은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산수화 위에 여러 갈래의 길을 내고 地名을 촘촘히 적어 넣어 지도를 그려 내었을 것이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옛 지도를 보다 문득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지도가 궁금해졌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고지도로 시작해 본다.

### 고지도, 문명을 기억하다

1993년, 소 축제로 유명한 스페인 나바라 지역의 동굴에서 빗금이 가득한 돌이 발견된다. 14,000여 년 전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동굴 주변의 산, 습지, 사냥감의 서식지를 그려 놓은 인류 최초의 지도로 밝혀진다. 기원전 6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토판’에 세상을 새긴다. 바다가 둘러싼 원형의 대륙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두 강의 중심에는 황금으로 빛났던 세계 최고의 도시 바빌론이 위치한다. 1,500여 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 마셜 제도. 그곳의 원주민들은 돌맹이나 조개껍질을 붙여 가며 야자나무 막대기를 엮어서 바닷길과 환초 그리고 해류를 표시한다. 서양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지도를 만든다. ‘T-O지도’라고 불리는 중세 지도에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세 대륙이 자리한다.

여러 종류의 고지도를 통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옛 사람들의 관념을 읽게 된다. 또한 실제의 표상에 쓰인 두 가지 도형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원형, 사각형의 기초적인 도형으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原型的 사고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지도에도 고대부터 완전의 상징으로 여겨진 형상, 원은 나타난다. ‘하늘은 둥글고 땅



02 T-O지도

03 천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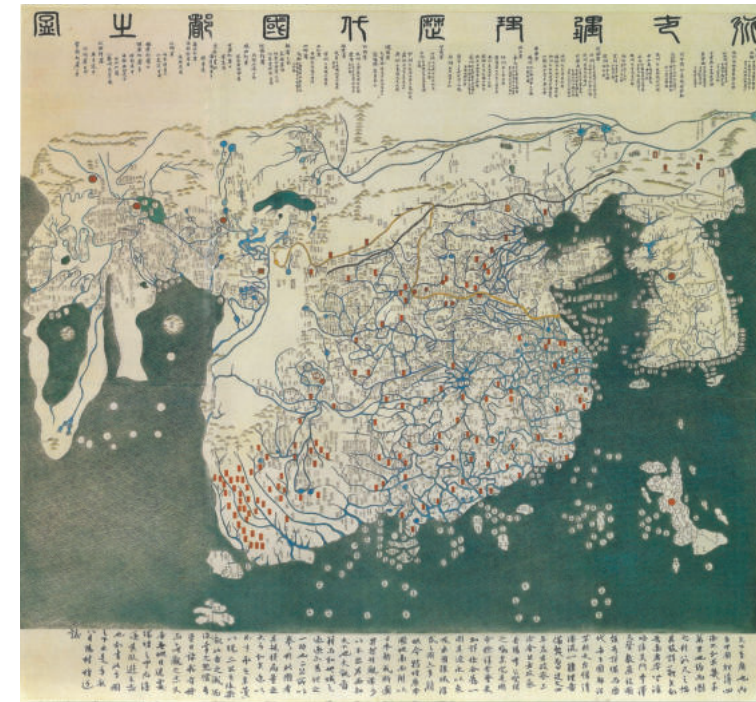
은 네모지다.’는 ‘天圓地方’ 사상을 반영한 <천명도>, <천지도>, 원형 <천하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지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적 지식과 함께 미술사, 도상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지도는 옛 사람들이 상징 기호로 써 놓은 ‘수수께끼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조선의 지도, 세계를 향하다

건국 10년 후인 1402년, 조선은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이하 ‘강리도’)>를 제작한다. 지도 이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華’와 중국 주변의 오랑캐 곧 ‘夷’를 ‘하나로 아우른다.’는 뜻의 ‘혼일’과 ‘변두리를 안다.’는 뜻의 ‘강리’를 포함하여 ‘알아야 할 또는 다스러야 할 역대 왕조와 세계의 모습’을 의미한다. ‘문밖을 나서지 않더라도 천하를 알 수 있다.’는 발문이 전하듯 중국 너머의 세상을 향한 조선의 자의식을 드러낸다. 당시 조선이 참고 가능한 중국의 지도는 기록에만 남아 있어 현전하는 동양 最古의 세계지도이다. <강리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만이 아닌 온전한 형태로 묘사된 아프리카 대륙이다. 나일강의 두 발원지에 위치한, 폭대기가 빙하로 덮여 보름달처럼 환하게 보인다는 ‘달의 산’이 그려져 있다. 유럽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히 그린 <프라 마우로 지도>는 베네치아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1459년에 탄생한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한 것은 1488년이다. <강리도>는 유럽보다 수십 년이나 먼저 아프리카를 그려 내 국제 학계로부터 당대 最高의 세계지도로 평가받는다.

중국의 지도 역시 세계사에 화려하게 기록된다. 중국 후난성의 무덤, 마왕퇴에서 발굴된 <地形圖>와 <州郡圖>는 부호와 축척을 사용한 동양 최초의 지도이다. 기원전 200년경에 실측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될 만큼 정확성을 자랑한다. 명대 수군 제독이자 외교관, 정화는 인도양을 건너는 대탐험에 나선다. 가축과 식물을 배 안에서 기를 만큼 규모가 크고 성능이 좋은 선박의 제조 기술과 뛰어난 지도 제작 기술이 28년간 일곱 차례 이루어진 대항해를 가능케 한다.



0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7세기에 이탈리아 선교사인 마테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였던 <강리도>는 현재 일본에 보관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리도>에서 조선의 뛰어난 정보력, 기술력과 함께 굴곡진 우리 역사의 단면과도 조우하게 된다.

### 지도, 시대정신을 기록하다

서기 166년에 로마 사신들은 인도에 이르는 바닷길과 말레이 반도를 건너는 육로를 거쳐 중국에 도착한다.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전해 준 정보와 ‘地球 球體說’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의 천문·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세계 지도를 완성한다. 로마가 멸망하자 그 존재가 잊혀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서 다음으로 대량 보급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 훗날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역사적 항해의 시원이 된다. 독일의 지도학자 발트제뮐러는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주장한 제4의 대륙이라는 말에 영감을 받는다. 세계 최초

로 ‘아메리카’ 대륙을 기록하여 흔히 ‘미국의 출생증명서’라 불리게 되는 지도를 1507년에 제작한다.

지도의 변모에 인류의 역사적 도전과 탐험이 함께하는 것은 현대에도 다르지 않다. 2007년도에 북극 해저에 국기를 꽂은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말 세계 최초로 북극에서 석유를 채굴해 낸다.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북극해로 몰려드는 상황은 19세기 금광을 찾아 서부로 사람들이 몰렸던 미국의 ‘골드 러시(gold rush)’와 유사하여 ‘콜드 러시(cold rush)’라 불린다. 세계의 관심이 북극해 자원과 북극을 통과하는 해상항로 개발에 집중되며 지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종이나 양피지에 문명을 기록하던 고지도를 첨단 기술의 결정판,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대신한 지 오래이다. 실제 세상을 轉寫해 놓은 구글 어스를 눈앞에 두고도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 무더진 거리와 방향 감각을 탓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고지도가 그려 내고 있는 현대인의 肖像이 아닐까. 🐼

# 표현의 재미와 공간의 미학

글 정은정 회원



엘리자베스 여왕, 마거릿 대처 수상, 그레이스 켈리 왕비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핸드백이다. 여왕은 핸드백을 이용해 접견의 시작과 끝을 신호하고, 수상은 각진 핸드백을 이용해 강력한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관철시켜 Handbagging(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또한 왕비는 애호하는 핸드백을 가림막으로 이용해 임신 초기에 파파라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작은 핸드백이 상징적인 역할을 해내거나 더 강한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커다란 백 모양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전면 유리 건축물이 서 있다. 복합 문화 공간인 시몬느 핸드백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주디스 클락 교수팀이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맡아 전 세계에서 수집한 350여 점의 핸드백이 전시되어 있다. 판매되는 핸드백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박물관의 핸드백은 보존용으로서 가치를 지닐 뿐이다. 그러나 역사를 반추해 보면, 박물관의 핸드백 역시 우리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디스 클락은 사람의 손을 캐스팅하여 마네킹의 손을 만들어, 사실적인 포즈로 핸드백을 표현하는 재미를 준다.

박물관이 시작되는 3층 현대관은 20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는 매력적인 핸드백의 공간이다. 백색의 사각형 격자 선반은 차갑고 깨끗한 느낌을 담아내고, 흰 천을 댄 회색 박스 안에 핸드백을 세심하게 수납했다. 마네킹이 전시된 유리 선반 너머엔 창을 내어 모던하게 열린 공간의 느낌을 더한다.

1920년대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토 아래 핸드백도 단순하게 디자인했으며 소재에 집중하여 가죽을

나무처럼 가공하거나 스웨이드를 사용했다. 신여성들의 클럽 문화에 유용한, 작지만 기능적인 백도 등장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방독면 휴대를 당부한 영국 정부는 여성들이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해 꽤서너블한 방독면 핸드백을 만들어야 했다. 1950년대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름다움과 참신한 디자인을 추구하던 핸드백 부흥기였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최신 잡지를 맡아 올린 모양의 클러치가 유행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전문 제조업체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등장하였다.

4층 역사관은 과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선반을 어두운 물딩으로 처리하여 밤과 같은 공간을 연출한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대다수 핸드백의 크기가 작은 것을 고려해 핀 조명을 활용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소재를 부각시킨다. 전시 공간 사이에 작은 창을 내어 식물이 있는 테라스를 보여 주는데 잠시 숨을 고르게 하려는 듯



01 시몬느 핸드백박물관 3층 전시관



02

- 02 시몬느 핸드백박물관 4층 전시관
- 03 샤틀레인, 1850년경, 유럽
- 04 레티쿨, 1800-1809, 영국
- 05 박스백, 리알토, 1950-1959, 미국
- 06 핸드백, 모스키노, 1996, 이탈리아

하다. 대부분의 가방은 회색 뒤판에 돌출된 작은 고리로 고정되어 있다. 소재가 주는 느낌 때문에 표본 같기도 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하여 19세기에 또 다른 열풍을 일으킨 샤틀레인은 저축을 상징하는 도토리 모양의 수첩, 단도, 줄자 등 필요한 물건을 매달아 허리에 차고 다녔다. 몸의 체취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향낭, 신고전주의의 특징인 밝은 색상과 절제된 장식을 보여 주는 편지 지갑, 사랑의 증표였던 신부 주머니도 지녔다. 옷 안에 형태를 잡아 주는 파니에라는 공간을 만들어 정교한 자수주머니를 두르기도 했다. 18세기 말에는 몸에 딱 맞는 드레스가 유행하면서 복주머니처럼 생긴 레티쿨이 필수품이 되었다. 19세기에는 구두쇠주머니를 비롯한 편물 실크지갑 만들기 열풍이 불었다. 1880년대 이후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질 좋은 가죽 백이 등장하였다. 많은 물건을 담고, 메탈 잠금 기능을 갖춘 현대 핸드백이 탄생한 것이다.



03

04



05

06

시간 여행으로 핸드백의 변천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3층과 4층 복도에는 빼대만 남은 프레임과 핸드백을 들고 다양한 제스처를 보여 주는 파리지엔느의 엽서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다.

핸드백에 대한 애정으로 박물관을 일궈 낸 박은관 회장은 국립중앙박물관회의 기부회원이다. 그는 '핸드백이란, 여자가 살고 있는 삶과 살고 싶은 삶의 궤리를 메우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리고 '시간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며, 시몬느 자체 브랜드 '0914'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투박한 멋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에 우리의 전통 문양이 깃들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도 엿어 본다.

우리 속에 비친 작은 박물관, 핸드백의 배움을 받으며 채움의 즐거움과 비움의 홀가분함이라는 내밀한 기억도 담아 간다. 🐾

# 고려시대 佛敎香爐의 전통성과 독창성

글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01 참지정사명 사자진병향로, 고려 12~13세기, 길이 20.5cm,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불교향로는 전통성과 독창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상반되는 속성일 수도 있지만 전통을 바탕으로 독창성이 발휘되는 경우와 고려인들만의 창조적인 독창성이 표현된 경우 모두 향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불교향로 중에는 통일신라부터 사용된 기형을 그대로 계승하여 고려화한 것과 통일신라시대의 향로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향로가 있다. 고려시대의 獅子鎭柄香爐가 전자에 해당하고, 향완이 후자에 해당한다.

사자진병향로는 8세기 중반 唐에서 발생한 향로의 기형으로 神會身塔 출토품이 대표적이며 받침과 노신, 여의두형 금구장식, 손잡이와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자진병향로의 통일신라 전래는 9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작으로는 麟角寺 출토품과 리움 소장품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에서 출토된 參知政事銘 사자진병향로와 雲峰寺銘 사자진병향로가 알려져 있고, 2점 모두 받침과 노신은 사라지고 손잡이만 남아 있다.

參知政事銘 사자진병향로는 통일신라의 凹자형 손잡이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參知政事銘은 손잡이와 사자를 연결하는 방식도 麟角寺 출토품과 같이 손잡이와 사자를 별주한 후 리벳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작 기법도 통일신라의 전통을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자의 모습은 통일신라의 향로와는 다르게 목에 방울이 있어 이미 부분적인 高麗化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雲峰寺銘 사자진병향로는 參知政事銘에서 보이던 통일신라의 전통이 사라진다. 손잡이는 통일신라와 參知政事銘에서 보이던 凹자형 손잡이 대신 ㄱ형태로 변화되고, 사자는 參知政事銘과 같이 목에 방울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雲峰寺銘 사자진병향로가 부분적으로 변화된 參知政事銘보다 더욱 고려화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손잡이와 사자는 通鑄로 되어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별도로 주조 후 연결하는 전통기법이 雲峰寺銘 단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고려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 사자진병향로에 보이는 통일신라의 전통은 參知政事銘 사자진병향로의 경우로 보아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 전반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 雲峰寺銘 사자진병향로와 같이 고려화된 사자진병향로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고려시대 범종에 입상화 문대가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신라시대 불교향로의 발전적 계승은 고려시대 香垸을 통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향완의 발생은 『高麗史』의 기록 등을 통해 늦어도 11세기 말에는 고려시대 향완의 기형이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도 1144년 이전에는 고려시대 향완의 기형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향완에 선행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향로는 다족향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족향로가 향완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먼저 삼족이 달린 받침이 사라지는 대신 층급이 있는 원형 받침으로 변화하며, 외반된 구연에는 전이 짧게 형성된다. 이 같은 변화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원형 받침과 나팔형 간주, 구연에 전이 달린 노신을 갖춘 향완의 기형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향로인 香垸도 통일신라의 전통 속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香垸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또 다른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독창성을 기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걸어서 사용하는 현향로이다. 현향로는 병향로와 거향로와는 다르게 경전적인 근거는 없지만 고려인들의 독창성이 발현된 것으로 미타회와 같은 의례에 사용되었다. 이 향로는 현재 많은 유물이 전하지는 않지만 통일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가 존속했던 기간에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형이고, 조선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의 향로이다.

고려시대 현향로는 타원형의 노신과 연공이 있는 반구형의 뚜껑, 노신 측면에 연결된 雲形의 고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고, 원주 법천사지와 청주 사뇌사에서 출토되었다. 현향로의 구체적인 사용례는



02 사뇌사지 출토 청동현향로, 고려 13세기, 높이 46.5cm, 국립청주박물관



03 함평궁주방명 청동은입사향완, 고려 13세기, 높이 23.3cm, 국립대구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원주 법천사지 출토 현향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현향로에는 무자년에 법천사의 미타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용도를 알 수 있으며, 이 현향로는 향완과 광명대 등과 세트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독창성은 청동은입사향완에 은입사된 문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범자의 문양틀로 사용된 여의두문의 원권은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가장 특징적인 문양일 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청동은입사향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자를 향완에 은입사하는 것은 고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다.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문양은 단계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다. 卍字와 간주 상단의 연판문은 大定4年銘 향완부터 나타나고, 노신 받침의 연판문은 大定17年銘 향완부터 나타나며, 卍字 사이의 연화당초문은 貞祐2年銘 향완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卍字의 문양틀로 나타나는 여의두문 원권과 간주 상단과 노신 하부의 연판문은 貞祐6年銘 향완부터 나타나며, 지정연간의 청동은입사향완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노신의 연판문 위에 卍字와 연화당초문이 표현되는 것은 고려시대 香垸의 가장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교적인 문양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다양한 문양은 佛具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청자의 문양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04 태강3년명 청동연지형병향로, 고려 1077년, 길이 18.8cm, 국립중앙박물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卍字 문양은 몸체에 은입사로 범자를 크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卍字가 의미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찬탄어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卍字 문양을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옴마니파드베흙(om mani pad me hūm) 계열의 卍字인 卍으로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는 세상에 변함없는 보주이시여 정결케 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다. 大定17年銘 청동은입사향완과 咸平宮主房銘 청동은입사향완이 여기에 속하며, 대정17년명은 구연의 전에 옴마니파드베흙의 6자, 함평궁주방명은 노신에 옴마니파의 4자가 은입사되어 있다. 고려시대 옴마니파드베흙의 6자 진언은 『大乘莊嚴寶王經』의 전래와 관련이 있으며, 그 시기는 11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옴마니파드베흙의 6자가 옴파니파의 4자로 줄어드는 것은 6자 진언의 교의적인 이해보다는 공덕에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옴마니파의 4자로 줄어드는 것은 咸平宮主房銘 청동은입사향완의 제작 시점을 고려할 때, 1247년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움흐리히흙(a om hrīḥ hūm) 계열로 大定4年, 大定17年, 至正26年 眞宗寺銘 청동은입사향완에 나타난다. 아자는 진언의 冒頭에 나타나는 최상의 찬탄구이고, 흐리히는 진언의 끝에 나타나는 감탄사이다. 아움흐리히흙은 최상의 의미를 가진 卍字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4자의 梵字이며 진언의 첫머리에 나오는 음으로 시작하여 찬탄어구로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의 梵字는 4자의 梵字가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至正4年銘, 至正6年銘, 傳龍門寺 청동은입사향완, 麻谷寺 청동은입사향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傳龍門寺 청동은입사향완의 **𑖀𑖄𑖟𑖛**(om vajra vim)은 ‘오! 금강이여.’라는 뜻이고, 麻谷寺 청동은입사향완의 **𑖀𑖄𑖟𑖛**(om ga na gra)는 ‘오! 무수한 (존재)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넷째, 4자의 梵字이며 태장계 사불을 나타내는 a ā am ah로 이루어진 것으로 至正12年 龍藏禪寺銘 청동은입사향완에만 나타나고 있다. **𑖀**(a)는 東의 寶幢如來, **𑖂**(am)은 西의 無量壽如來, **𑖄**(ā)는 南의 開敷華王, **𑖟**(ah)는 北의 天鼓雷音如來를 상징한다. 龍藏禪寺와 같은 선종계 사찰에 봉안되는 향완에 태장계 사불을 상징하는 4자의 梵字가 새겨지는 것은 元代 불교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불교의례가 선행되었고, 불교의례의 시작에는 향을 피우는 소향의 과정이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고려시대에 사용된 불교향로는 통일신라의 전통 속에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고려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향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신라부터 사용된 기형을 그대로 계승하여 고려화한 것으로는 사자진병향로가 있었고, 같은 기형의 향로도 시기에 따라 점점 고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의 향로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향로로는 향완이 있었고,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독창성을 기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현향로가 있으며 청동은입사향완에 은입사된 문양에서도 독창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 불교향로에 보이는 전통성과 독자성은 통일신라 향로의 계승과 조선시대 향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격으로 판단되며, 중국과는 다른 한국적 불교향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심사평\_**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고려시대 불교향로를 전통성과 독창성이라는 발전적 맥락에서 고려로의 이행과 특징 형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연구로 우수하다.

**심사평\_** 정우택(동국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각종 불교향로의 기능과 형식,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양식 규명을 통하여 고려의 독자성을 밝혀내고자 한 우수한 논문이다. 특히 향완의 범자문을 국내 최초로 분석하여 그 내용과 사상, 나아가 고려대장경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연구이다.



유리잔,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

## 대롱불기 유리잔

속이 빈 금속 대롱 끝에 녹인 유리 묻히고  
 숨을 불어 넣자 동그란 유리잔이 자라난다.  
 \*펀티 자국 구불대는 바닥엔 굽을 세우고  
 주둥이는 말아 올려 파란 띠를 두른다.

기원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장인들의 유리 제작기술  
 불과 몇 분 만에 똑딱 만들어 낸다.  
 대량생산으로 유리 생활용품이 보급되니  
 로마제국 영내 그릇이라 로마글라스로 불린다.

실크로드를 따라 신라에 들어와선  
 돌무지 덧널무덤 속 왕을 위한 부장품이 된다.  
 겉면의 거북 등껍질 무늬는 왕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듯  
 지배층의 전유물로 무덤에 살며 권력을 자랑한다. 🌿

\*펀티(punty) : 대롱에서 유리를 떼어내 입구를 빚을 때 바닥 쪽에 붙이는 막대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鄭溶鎮  
監 事 | 金教台 朴禎原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현무회원

하나금융그룹 金正泰

##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주)시몬즈 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계사 주지  
鄭溶鎮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晁 프라이머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金信韓 대성 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예울 이사장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李圭植 경신금융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주)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일진홀딩스(주) 대표  
OCI 사장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수원대학교 이사장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호성홍업회장  
성암고서박물관장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주)화승R&A 부회장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寧慈 (재)예울 명예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李海珍 NHN(주) 이사회의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李英純 朴正遠 金載烈 金仁順 朴知原 曹在顯 曹榮美 金世淵 金兌炫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빅스윈(주)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幸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吳勝敏 동일산업(주)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李宰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주)가온소사이터 대표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楊仁集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문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부회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문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문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전문  
許允烘 GS건설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상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姬 회원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萬玉 회원  
金東官 한화 큐셀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본부장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朴璟鎭 (주)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JTBC 대표이사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侖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柱翰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常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周成 세아제강 상무이사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許辰秀 SPC(주) 상무  
洪範碩 (주)남양유업 부장  
具本權 (주)LS 과장  
朴載相 현대상선 전문  
鄭志伊 TV조선 실장  
方正梧